

# 인간 복제 배아의 신학적 지위

최 성 호

## 1. 들어가는 말

복제양 돌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1996년 6월 5일이었으니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다. 당시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필자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이틀 밤을 잠을 못 이루며 고통스러운 상념들과 씨름하던 기억이 난다. 포유류가 복제되었다면 그 다음은 인간 차례가 아닌가? 그렇다면 복제될 수 있는 '나'란 실존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사의 주님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은 화염검을 들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던 그룹들을 무장해제 시키신 것인가?

돌리는 2년 후에 웨일즈의 수컷 산양과 정상적인 짝짓기로 '보니'라는 이름의 2세를 출산하여 자신이 양의 유전자를 가진 괴물'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진짜 양'인 것을 증명하였고, 그 후 동물 복제는 쥐, 고양이, 소 등 여러 종으로 확대 되어갔다. 그러나 돌리 출현 이후 가장 획기적이고 심각한 사건은 뭘니 뭘니 해도 황우석 교수 팀에 의한 인간 배아복제에 의한 줄기세포 배양 성공일 것이다. 왜냐하면 불과 2년전 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은 다른 종들과는 달리 인간이 포함된 영장류 동물의 경우에는 중대한 기술상의 장벽(염색체 분열의 동력을 담당해야할 방추체 단백질 난자 탈핵 과정에서 함께 제거될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체세포 핵치환에 의한 복제가 당분간, 아니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 복제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장벽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인데, 황우석 연구팀은 소위 한국인의 '젓가락' 기술로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불치병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장밋빛 희망을 안겨 주었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 복제를 향한 가장 중요한 관문을 열어젖힘으로써 생명사의 왜곡과 변고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9세기 다윈이즘의 출현이 하나님의 과거 창조 주권에 관한 기독교의 믿음을 흔들었다면, 작금의 생명공학 기술의 출현은 하나님의 현재적 창조 주권에 관한 기독교적 신념들을 흔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포탄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곳에 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탄이 떨어지는 첫 번째 충격의 장소는 신론 특히 하나님의 생명 주권의 영역이다. 하나님은 이제 생명의 영역에서 단순한 '시계 제작자(watch-maker: 처음에 시계를 만들어 작동하게 하고 그 후에는 관여하지 않는 존재)'로 은퇴하고 마는가 하는 이신론(deism)적 좌절감이 신론(theologia)을 위축시키고, 이러한 신론의 위축은 당연히 교회의 신앙의 위축으로 이어져 벌써부터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생각의 방향을 바꿀 필요도 있다. 흔히들 작금의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인간의 '하나님 노릇하기(playing God)'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하나님 노릇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playing God means denying God)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문화명령 속에서 이미 인간이 이 우주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 노릇' 하는 청지기로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자연과 인류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노릇'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농업과 가축 사육, 사냥이 그렇고 사형제도 또한 그러하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노릇하기'는 그 태도와 행위의 의도에 따라서는 '하나님 섬기기(serving God)'의 한 형태일 수도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 생명공학 기술이라는 것은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인 난자, 정자, 수정란 혹은 체세포를 가지고 작업 하는 생명 조작(life manipulation)에 불과할 뿐, 결코 한 생명체의 '살아있음(livingness)'을 만들어 내는 무(無)로부터의 생명 창조(creatio ex nihilo)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이신론적 좌절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히 변함없는 생명의 창조자시오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충격의 장소는 인간론의 영역이다. 인간이 복제된다면 하나님의 형상도 자동적으로 함께 복제될 수 있는가? 인간의 영혼이란 과연 무엇인가? 복제 배아의 신학적 존엄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런 도전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신학적 사고의 틀을 재조명하고 정리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이한 낙관주의라는 게으름에 빠지거나 그 반대로 무분별한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힌 채 시대를 분별하는 맥을 놓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런 맥락에서 성경적 인간 이해의 틀을 재조명, 재정비하는데 일조하고자하는 바램으로 현재 생명 담론의 마당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 즉 인간 복제 배아의 신학적 지위 문제에 접근해보려고 한다.

## 2. 일반적인 인간 배아(non-CNR embryo)의 신학적 지위

일반적인 인간배아(체세포핵 치환 과정이 아닌 수정란에서 출발한 배아)의 신학적 지위를 논하기에 앞서 그것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한쪽 극단의 견해는 인간배아, 특별히 배반포(blastocyst) 시기의 배아는 특별한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 세포덩어리로서, 그 소유자인 부모의 뜻에 따라 아무 곳이나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극단은 인간배아는 도덕적으로 성인과 동등한 한 인간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극단적 주장들의 장점은 자기 논리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 주의적 주장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현실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의 공공정책은 이 양 극단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다. 즉 배아가 갖는 ‘잠재적 인간 존재(potential human being)’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 도덕적 지위는 그 배아가 태아를 거쳐 신생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성숙도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견해는 “어느 시점부터?” 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초기 배아를 연구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배아에 원시선이 출현하는 14일 이전의 연구 행위를 허용하도록 1990년 영국에서 통과된 ‘인간 수정 및 발생학 법’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인간배아의 신학적 지위는 어떠한가? 이를 논하기에 앞서 한 개체의 도덕적 지위의 기준과 신학적 지위의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 다 개체의 ‘존엄성(dignity)’를 규정하기 위한 방법론적 용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것에 접근하는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 전자가 인간적인 상식적 논리와 정서적 공감대에 근거한 ‘인간성(humanness)’을 그 척도로 한다면 후자는 생명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relationship)’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 (1) 인간의 영혼을 제대로 이해하기

한 개체의 신학적 존엄성을 이야기 할 때 흔히 거론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다. 과연 배아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그 존엄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의 영혼(soul)이란 무엇인가부터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영혼이란 말은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영혼을 ‘죽은 자의 닻’으로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전생, 현생, 내생을 관통하는 초육체적인 자(自我) 실체로 설명한다.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에 간혀 있다가 죽음으로서 육체에서 해방되는 불멸의 이데아적 실체로 이해한다.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도 일원론, 이원론, 삼원론 하며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영혼이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좌소(prime seat)로서 육체와 구별되는 불

멸하는 모든 정신적 활동의 중심적 실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헬라적 세계관과 히브리적 사고가 뒤섞여 있던 주후 1세기에 기록된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영혼(psuche)이란 용어는 단일 되고 통일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육체로부터 분리된 실체’ 로(마10:28, 계20:4), 다른 곳에서는 전인적이고 실존적인 ‘목숨’ 을 가리키는 말로(마10:39, 요13:37) 서로 다르게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 범문화적 공통 요소들을 정리해보자면 인간의 영혼이란 하드웨어적인 육체와 구별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생명인격으로서, 시간 속에서 연속적이며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생명의식과 자의식의 주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영혼에 대한 의식은 대체적으로 육체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깊은 동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육체적 죽음의 문제가 절실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영혼의 문제 또한 절실해진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간에게 죽음과 더불어 흥하게 부패하고 소멸되어 버리는 육체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감이 없다면 영혼이라는 개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어쨌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영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보다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시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렇게 영혼이라는 단어 속에 강하게 내포된 종말론적 뉘앙스를 고려할 때 영혼이란 용어를 이용하여 생명의 초기 단계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시도, 즉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수정란이 되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 영혼이 창조되어 주입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정란과 배이는 성인과 똑 같이 존엄한 존재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고 따라서 설득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근거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소위 ‘영혼 주입설’ 이란 이론은 확고한 성경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인간 생명의 시초 단계에서는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해야 할 것인가? 종말론적 생명성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헬라어 신약 성경과 대조적으로 창조론적 생명성, 즉 생명의 시원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영혼’ 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네페쉬(נֶפֶשׁ - nephesh)’ 이다. 그런데 사실 이 ‘네페쉬’ 라는 말은 ‘영혼’ 보다는 ‘살아있는 존재(living being, נֶפֶשׁ חַיָּה - nephesh haia)’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육체와 구별되는 불멸의 정신적 실체’ 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용어다. 심지어 창세기 1장에 보면 다른 동물들을 가리킬 때도 이 ‘네페쉬’ 란 말이 쓰이고 있다. 요컨대 동물이건 사람이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다고 인정받는 존재라는 뜻이다.

창2:7의 유명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man became a living being)”에서 보듯이 사람이 영혼을 갖는(have)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이 되는(become) 것이며 영혼으로 존재(be)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103:1)라는 노래의 병렬적 표현에서 보듯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내 ‘영혼’ 즉 ‘네페쉬’ 인데, 그 영혼이란 다름 아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all that is within me, כֹּל־קִרְבִּי - kolqerebi), 즉 ‘나 자신’ 이다. 즉 여기서 내 영혼이란 바로 ‘나’ 라는 파일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129:13의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나’ 즉 ‘내 영혼’ 은 모태에서 내 내장이 지어지면서 조직되어(weave) 이루어지는 존재, 즉 형성되는 존재라는 것이 구약의 인간론이다. **요컨대 인간의 영혼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에게 첨가되거나 주입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성되는(becoming) 인간 그 자신이다.**

## (2) 생기를 받고 있는 자로서의 존엄성

한 영혼으로서의 인간의 형성 과정은 수정, 착상, 그리고 출생이라는 그 이전 과정과의 연속성이 단절된

일련의 중대한 단층적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conception)은 비존재와 존재 사이의 불연속성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발생 사건이다. 착상(implantation)은 독립성과 관계성 사이의 불연속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다. 이를 통해 형성된 첫 번째 2인칭 즉 어머니와의 관계성은 영원한 2인칭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향한 창문이 된다. 세 번째 단층적 사건인 출생(birth)은 한 존재의 주체성과 능동성의 출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흡으로 지은’ 세포라고 불리는 물질적 존재에 ‘생기(breath of life)’를 불어넣으시며 수정과 착상과 출생이라는 3대 사건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관계성(relationship) 속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존재하는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을 과정적으로 조직하신다.** 그러므로 수정란이나 초기 배아는 착상되지 않은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착상되기 위한 목적적 존재이며 스스로 착상되려하는 내재적 드라이브를 가진 의지적 실체이다. 또한 착상된 태아는 출생하지 않은 장기 결합체가 아니라 출생하기 위한 목적적 존재이며, 출생하려하는 내재적 드라이브를 가진 의지적 실체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과정에 자의적으로 침입하여 그 목적성과 의지를 소멸시킨다면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입김을 가로막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비록 아담처럼 순간적으로 생명이 되지 않고 과정 속에 있는 실체라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도 진흡으로 빚어진 아담처럼 지금 하나님의 생기를 향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향하여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말 한대로 어떤 존재의 신학적 지위가 **하나님과의 대면적 관계성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면 배아의 자의식 유무에 상관없이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의 신학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의 영향 아래서 스스로 착상되려는 본능적 의지를 자신 안에 담고 있는 수정란의 착상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착상된 태아는 스스로 출생하려고 하는 본능적 의지를 자신 안에 담고 있기에 그의 출생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 그 어느 곳에도 ‘14일 이후’ 라는 이정표는 없다. 14일에는 아무런 단층적 중대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중심선(central streak)의 출현이 주는 실존적 의미는 매우 모호하고 허약하며 더구나 그것은 13일부터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5일부터 나타나기도 한다. 소위 ‘성숙도에 비례하는 존엄성’이란 개념이 더 이상 ‘14일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변명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미성숙은 성숙을 위한 개념이지 비존재로의 후퇴를 위한 핑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간 배아는 단순한 가능체가 아니라 ‘생명으로 형성되어 가는 진행형의 실체’로서, ‘스스로 생명 됨을 향하여 전진하려는 내재적 드라이브를 가진 유기체’로서, 따라서 ‘생명으로 형성되어야 할 신분을 지닌 존재’로서의 신학적 지위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 3. 체세포 복제 배아(CNR embryo)의 신학적 지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어 생긴 일반배아의 경우였다. 그러나 최근의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인간 배아, 즉 체세포의 핵을 탈핵난자에 치환시킨 복제 배아(Cell Nuclear Replacement Embryo - CNR embryo)다.

영국 켄트대학교의 사회윤리학 교수인 Robin Gill은 체외 수정에 의한 일반 비복제 배아(non-CNR embryo)를 자궁 안에 착상시켜 신생아로 자라게 하는 것은 체내에서 수정된 배아가 착상되는 것처럼 아무런 도덕적 법적 문제점이 없으므로 비복제 배아는 잠재적 인간으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체세포 복제 배아의 경우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복제 배아의 경우는 그것을 자궁 내에 착상시켜 자라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기에 복제 배아를 도덕